

〈病人懇親會錄〉의 현실 인식과 저자 연구

차 미 라*

차 례

I. 서론

II.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

III. 『大韓民報』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

IV. 결론

I. 서론

개화기는 격동하는 전환의 시대로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교차하는 시기에 속한다. 한국 개화기의 특성은 근대화와 자기 보존이라는 양극적인 과제를 척사와 개화라는 상반된 시대정신 아래서 성취해야 했던 민중 계몽의 시기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개화기 특성 곧 양극적인 계몽주의적 시대정신은 문학 작품의 토양이 되고 이러한 시대 정신은 개화기 문학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화기 소설은 한국사에서 근대화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개화기에 생산·제작된 이른바 과도기적 소설 형태로서 보다 포괄성을 띤 문학 장르의 명칭이다. 따라서 개화기 소설은 봉건 질서의 붕괴와 근대 자본주의 질서의 생장이라는 사회 변화 속에 놓이는 특수한 시대의 산물¹⁾로서 평가된다.

* 동의대학교 강사

개화기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행본으로 발행된 新小說 뿐만 아니라 신문연재소설에 주목하면서 개화기 신문의 논설, 잡보란에 실린 서사 단형체에 대한 폭넓은 개화기 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기존의 연구가 전기적·서지적 연구를 비롯하여 문학사, 비교문학, 문체 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화기 문학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 방향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화기 신문연재 소설 중 『大韓民報』에 수록된 <病人懇親會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 신문연재소설은 無署名이나 筆名으로 수록된 작품이 많다. 현재 筆名을 검토하여 알려진 작가도 있으나³⁾ 체계적인 유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病人懇親會錄>이 표출하고 있는 당시 사회상을 등장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저자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토론체 소설 형식을 빌려 당시 사회상을 객관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病人懇親會錄>은 단순히 비판적 시각을 넘어 개화기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쓰여진 <病人懇親會錄>은 당대 사회적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1) 洪一植, 『韓國開化期の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80, 171쪽.

2) 韓元永, 『韓國開化期新聞連載小說研究』, 일지사, 1990

정선태, 『개화기 신문논설의 서사수용양상』, 소명, 1999

김형중, 『애국계몽기의 신문연재소설』, 한국문화사, 2001

한기형,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김윤규,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연세대학교근대한국학연구소,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연구』, 소명, 2005

연세대학교근대한국학연구소, 『한국근대서사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 소명, 2005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3) 李海朝가 많은 필명으로 창작활동을 한 바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외에 白岳春史가 장응진, 鳳凰山人, 鳳山은 李鍾麟, 槃阿는 石鎮衡으로 알려져 있다.

II.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

<病人懇親會錄>은 1909년 8월 19일 『大韓民報』 제58호부터 연재되어 1909년 10월 12일 제101호로 끝난 작품이다. 총 연재 회수는 36회로 특이하게 『諷刺小說』이라는 말이 제목 앞에 붙어 있으며 저자는 轟笑生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품의 취지는 政治, 法律, 商·工·農業, 勞動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손을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환영, 환송, 협조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병신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 병신간친회를 발기하여 회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병신들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주장하여 인생에 힘쓸 수 있는 조직된 단체를 중심으로 환란의 질곡 속에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토론하며 지식을 교환하여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더서양문명향나라에는 우리갓흔병인을위호야 각색병인원을 설립호야 지식을넉히어쥬노라고 학교도설립호고 생계를붓잡아쥬노라고 실업도장려호거날 우리나라에는 보통병신들은고사호고 맹아원(盲啞院) 한곳도 아죽업스니 이갓치풍조(風潮)가위험호고 경쟁(競爭)이극렬호 시대에장차 두손을목고 죽기를 기대림이가홀손가 남을의뢰말고 스스로쥬장호은 인생의힘쓸바라 우리도한단체를 조직호야 환난질고에서로불상히닉이고 서로붓드러쥬며 또한 서로토론호야 지식을 교환호면 엇지 몸은 완전해도 마음은혜어진무리를 붙어호리오 (2회)

이러한 취지로 모인 병신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데 병신 중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남보기에는 관계치 않는 청맹관 아모씨를 임시 회장으로, 병어리 아모씨를 임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규칙제정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논박하였지만 결국 반병어리와 체머리장이가 선출되었으며 절름발이부터 토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병신이기 는 하지만 모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 최대한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 봉건 관료에 대한 비판

新小説은 반봉건을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설정해 왔다. <病人懇親會錄>에서

도 봉건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가) 조숭(姚崇)이논 어진 정승으로 우리절눔바리숭내를 내여 소인의참소
 흡을 먼훤얏스니 그안이 두다리멀정훤고 남의턴대맞는무리보다 몇칭놓지안
 이훤호 본래마암들이고상(高尚)훤야 사환에 뜻이업고강령(綱領)이분명훤망진
 쓰기로 생애를훤며 각도방백의 준민고택훤는 것을 평생에 타매훤거날 ... 중
 략 ... 다리는비록절지언정 행세는 절지말아 근래의 소위대신이니 협판이니
 훤시는낭만들 갖치 두다리가갓츨이서 쥬야를불계훤고 갈대못갈대 함부무짜
 단이며 대신의자나 협판의자를 잉입을훤라던지 도득을훤라고 애걸복걸훤야
 행세에 절눔바리되듯훤지말기를 바라오 (9회)

(나) 시속자들은 두눈을가지고도 당연히국가사회에리올것은하나못보고
 밤낮본다는 것이 기생 삼패 골패 투전 화투등물보기로엇더케썩밧분지눈이들
 감져넷이 백엇더래도 오히려부족홀모양입디다 ... 중략 ... 갑(甲)은 탐관질
 을훤앗던지토호질을훤앗던지 루거만재산을 거누구모양으로 모아두고 대대로
 체물건된줄알고피천대풍공익에는쓰지안이훤다가 란봉의자식이 나던가의외에
 재변이나서 툇툇맞치는일이 의례히잇스니 이는즉 보배시러온두눈을가지고볼
 것못보는것과 일반이오 일(乙)은변변치안이훤재산을 가지고 밥먹을 것을 죽
 을썩어먹고 두째먹을것을 한째를먹어가며 민족에리온일이라던가 나라에밧
 날일이라면 초차단이며 보조를훤야 적은것가지고 큰사업훤는 것은 즉 외눈
 으로도 정당훤것만보는것과일반이아니겟소 (11회)

(다) 전라감사나 통대사가 엇더훤벼살이오 하나는 민정을관찰훤야 애민어
 자훤는성상의뜻을대량하는벼살이오하나는 룽군을통솔훤고 외적을방어하는
 벼살이어날 근래그벼살훤사람들이 직분을 다홀줄몰오고 시위소찬으로 국록
 만도적질훤 짜답에 사람을미워 벼살까지천히너임이라 나는그런벼살을훤번훤
 기긋훤면 간뢰도디(肝腦塗地)토록 직무를다훤야 벼살의광채를내고 일흠을
 후세에 날니기가 소원이라 (12회)

(가)에서는 절름발이가 자신의 역사를 말하고 난 뒤 자신이 바라보는 양반
 사회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소위 대신이나 협판이라 하는 양반들이 두 다리를
 멀쩡하게 가지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난잡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는 눈 하나 밖에 못 보
 는 외눈박이가 두 눈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역설한다. 눈이
 둘 있어도 기생질에 투전판을 쫓아다니니 제대로 두 눈 똑바로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두 눈을 가지고도 못 볼 것을 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눈

이라도 작은 재산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일이라 말하고 있다. (다)는 언청이의 말로 전라감사나 통제사라는 벼슬이 가지는 존엄성과 역할을 거론하면서 그 직분을 다할 줄 모르고 나라의 재산만 축내는 까닭에 그들을 도적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에게 맡겨주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병은 간단하여 제중원이나 대한의원에서 수술하면 되나 남몰래 사기 치고 시침이 때는 놈들 평생 쳐다보며 평생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한다.

위의 글에서는 우리 정부 대신이나 양반 관료들의 무능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시기 개화·개혁 운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에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 당시 사회는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에 따라 민생은 도탄에 빠져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문벌이나 세력가와의 교제에 힘입어 벼슬길에 오르거나 賣官賣職으로 관리가 되는 일이 많았다. <病人懇親會錄>에서는 무능한 양반, 관료들의 무질서한 행동들을 비꼬면서 당대 사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病人懇親會錄>에서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고발과 비판으로 강한 반봉건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2. 새로운 문명을 향한 부국강병의 염원

<病人懇親會錄>에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 소개하면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가) 나눈아모리 키는 적어도 마암은커서 평생에 아모대를 가던지허리를 굽혀비루흔 태도를호적이 업거니와 그네들은 키는칠척장신이라도 사상은 아췌고상치 못호야 아모문하예를 가던지 제몸용납호기만 요구호야 머리를숙이고 허리를굽혀 구구호상태를지으니 자괴호호야곰 자괴의신체를 새악호호기로 엇지붓그럽지 안이호호릿가 췌지금지대는 이왕어슈룩호던때와달나 경제를도더히 잘호기전에는 생활호기어려운대 우리는 키큰사람보다 의식췌(衣食住) 세가지중첫재가는 의복차가 반절맛게 안이드니 턴연덕(天然的)으로그경제가엇더호호 (18회)

(나) 우리동리학도호나가 이동안대학을 공부호난대 한번지나다다 그날

배은 대문뜻을 무러본즉 몸을다가 부국평턴하하는일까지 밋친다합되다성현의말삼이여복 정당하시겔소 지금개명호시대에 부국강병하자면 나라령디를 만히엇었야 도더히될것이니 나는쥬야축슈하고 옹망하기를우리 대한도 남의 나라갓치 오대죽각처에 령디를 내혹일반으로사면엇어붓척시면 데일강국되기가 어려울 것 무엇잇소 (27회)

(다) 서양각국에서는 우리갓치 압뫼보는맹인을 위호야 특별히학교를설립호고 지성것교육을호야 너너히생활호방침이 잇도록호여 쥬거니와 우리나라에서야 눈쁜놈도 상당호학교가 아즉 갓초잇지못호야 가라치지못하는데 언의거름에 눈먼놈가라쳐보겔소

동양으로 말호대도 지나에서는 음악을배오게호얏고 일본서는 안마법으로 생에케호거날 우리나라에서는 호갓경문이나 일거버러먹는대그남아못해먹고살나고엇던사람은 비방호기를 눈먼놈이눈쁜놈 속이러단닌다고호니그안이원통호일이오

여보 이세상에 눈쁜놈들다보앗소 눈만쓰면 무엇호오 매사를 나라이망홀지 인민이멸홀지 단두뺨을 못내다보고 눈압에리익만 취하라다가

국세를 요모양뺨만드러놓는 그눈무엇에 쓰잔말이오 (30~31회)

(가)에서 난쟁이는 그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비록 몸이 작긴 하지만 당당함을 강조하고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몸은 멀쩡하나 사상은 고상치 못해 어떤 문화에 들어가든지 제 몸 성하기만을 요구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구구한 모습의 식자들이 많음을 언급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에서 흑부리는 자신이 흑을 떼지 않은 연유를 설명하며 우리 나라도 남의 나라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흑으로 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다면 한 몫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다)에서 장님은 문명 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교인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 서양 각국에서 맹인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에서는 장님으로 하여금 음악, 일본에서는 안마법을 배우게 하여 병신이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만 뜨고도 나라가 망하고 인민이 망한다는 단 두 뺨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다 국세를 이 모양으로 만든 위정자들의 눈은 어디에도 쓸 곳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한 기대와 예찬은 新小説이 가지는 또 하나의 주제의식이다. 하지만 <病人懇親會錄>에서는 근대 문명에 대한 예찬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을 통해 병인들도 사회에 한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근대문명과 경제, 교육의 문제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좀더 실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민족의 운명과 비극

많은 新小說 작품들의 내용이 가족사나 애정 문제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病人懇親會錄>의 경우 민족의 운명과 비극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가) 더구나 지금이십세기경쟁시대(二十世紀競爭時代)를당하야 국권을확장하던지 민족을보호하던지(13장)

모다완력(腕力)으로하는데 남보다 팔이두서너개더잇서야 이빈약한나라를 붓들고 이멸망하논인민을 구할터인데 본래잇는두팔도남과갓치다스지 못하논엇지원통치안이하오릿가 ... 중략 ... 생각하교또생각 할수록 싹하교불상하기는 두팔두발이 멀찌크 。하야 웬갓사용을모다하면서 제괴디를 남이침탈하거나 제가옥을 남이 웅거하거나 제아비를 누가 능욕하거나제자식을 누가 학대하거나 쇠게물너눔모양으로열손가락하번씩대못하교 처분만바랍니다하논 그위원들이오니 아모조록 우리회원여러분은 사람마다 붓들고 권고하야하날이마련해쥬신 두팔을속절업시 썩여내버리지말고 물너덤뵈는범과 죽이러오는 사자를 힘써막아 생령신노릇을 맡계하시기를 엇의까지던지 바라교또바랍니다(14회)

(나) 또요사이 향곡소문을드러닛가 소위의병이라는도당이 동리마다돌아다니는데 일본군사가 그종적을 탐지하랴고 들어가면 거름잘것는 장땡배는 제 거름만밧고달아나니인정승속을자세알지못하논일본군사가 다라나는것을보고 더것이무슨협약이갓기로 겁냄이어니하야 총으로노코 환도로도질으지 안이하겠소 차라리모양으로 다라나지를 못하엿스면 그러케참혹하일을 안이당할뿐더러 얼마씩통정을하야 죄업는동포의 발명도하야 줄것이니 여복쫓켓소 (16회)

(다) 세상사람들이 귀먹은사람을 웃고조롱하나 불피다마는 자기를 귀밝아서 하논사업이 무엇이오 비밀운동이나 협잡사건이나 쥬쥬야야로 슈군거리는 말을 데일잘드러 제집패하교 제나라까지결단내느귀 ... 중략 ... 근일각사회를 대강구경하죽 정직하일에는귀가어둡고 허탄하일에는귀가 밝으며 청년자

데들을 살펴본즉 학문에는 귀가어둡고 계집노름에는 귀가 밝으니 그귀들다 두었다 무엇에쓰잔말이오 이와가치 여러말삼하기는 결코나의귀어둔것을 스스로 높혀말삼이 안이오라 일반우리동포들의 밝은귀를 어둡게쓰는일을 개탄 흡이올시다(20~21장)

(라) 우리나라의 국세가오날날 이와가치 빈잔하기는 국민의량이좁고 담이 크지못한 연고가 안이오 내배를보시오 심상헌배보다 몇갑절더 큼으로 도량은 팔구운몽(八九雲夢)갓치넓고 담은 동의당이갓치 커서록록한시속무리로는 언감생심비교도 못해볼것이니 그만하면 국권(國權)회복을 나혼자기로 주선 못해보겠소 나는이배를 삼시로 드러다보고 은근히 혼자말로 부탁하는 일이 잇소 나는배너를 저버릴지언딩 배너는 나를저버리지말고 널직한구석에 아모 조록 도헌경륜을 배포하얏다가 나라일을위하여 한번힘쓰게 하여라하오 (23회)

(가)에서 곰배팔이는 두 팔과 다리를 멀쩡히 가지고도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다. 20세기 경쟁시대에 국권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두 팔로 물고 덤비는 법과 죽이러 오는 사자를 힘써 막아 생명신 노릇하지 말자고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외세를 범과 사자로, 국가를 가옥으로, 임금을 아버지로, 백성을 자식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를 위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新小説에 의병이 등장하는 작품이 몇 있긴 하지만 <小金剛>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병을 부정적으로 일본 헌병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⁵⁾ 하지만 <病人懇親會錄>의 (나)에서 앓은뱅이는 소문을 빌려 의병이라는 무리를 찾아 다니는 일본 군사가 횡포를 부려 두 발로 달아나는 사람만 있으면 의병으로 몰아 환도질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차라리 앓은뱅이처럼 달아나지 못하면 죄없는 동포가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한일합방을 앞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탄압에 도망하지 말고 당당하

4) 『大韓民報』, 1910년 1월 5일~3월 6일 연재.

5) 崔瓚植의 <秋月色>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다른 소설들에서는 거의 부정적이다. 安國善의 <共進會>에서는 ‘불한당’으로, 崔瓚植의 <金剛門>에서는 ‘폭도’로, 李人植의 <銀世界>에서는 ‘무뢰지배’로 묘사되어 있으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秋月色>에서도 한편으로는 ‘폭민’, ‘난민’ 등의 묘사가 보인다. 그런데 新小説에 보이는 동학군, 의병, 화적, 도적, 민요, 마적, 서학군 등의 명칭은 ‘실체’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 맞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에서 귀머거리는 계집질하고 제 나라까지 결단내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청년 자제들이 학문에는 귀가 어둡고 계집노름에만 빠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인지하고 일반 동포들에게 어둡게 귀를 씌울 개탄하고 있다.

(라)에서 배부장이는 날마다 만찬이며 다과회를 열어 분주히 흥청망청 지내는 양반들의 배를 걱정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라의 기운이 날로 기울어가는 이 시점에 국민의 양이 좁고 담이 크지 못한 이유가 국권 회복을 나 혼자 하지는 못하니 함께 힘을 써 나라일을 위하여 자신의 배를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면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힘쓰고 공장을 설치하여 실업을 발달시키자고 하며 두 가지를 축하한다. 하나는 나라를 위하여 없으나 일반 되던 국민이 새로 생김을 축하하고 둘째는 우리 병신동포도 나라 일을 다른 국민에 못지 않게 할 것임을 축하하며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끝난다. <病人懇親會錄>은 토론체 소설 형식이다. 토론체 소설은 일제로부터 주권을 상실당하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의식을 등장인물의 토론이나 연설 등을 통해 표현한다. 이 작품은 언론통제의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임에도 일본에 대한 반감, 그에 대응하는 관리들의 무능이나 부패상을 여타의 新小說 작품보다 강도 높게 드러내고 있다. <病人懇親會錄>은 허구적인 서사공간으로서의 연설회장을 설정하고 육체적인 불구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등장인물들이 병인이라는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과 천대와 불이익에 반발하면서 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인 병인은 단지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일 뿐이며 그보다 현실 속에서 도덕적 타락과 부정, 부패가 심각한 사람들을 더 큰 병인으로 지적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병인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예속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 전체를 풍자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권이 상실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국권을 찾자고 한다.

1905년 2년여에 걸쳐 벌어졌던 노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개항 이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열강들과의 각축을 벌이던 일본이 끝내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국내의 정세 속에 창작되어진 작품이 <病人懇親會錄>이다.

<病人懇親會錄>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봉건 관료에 대한 비판, 새로운 문명을 향한 부국강병의 염원, 민족의 운명과 비극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이 가지는 현실 인식은 기존 여타의 新小說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 新小說 작품이 반봉건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한 집안의 처첩 간의 갈등 등을 다루는 가정소설류가 많았다. 계몽적 성격을 띤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 문물에 대한 동경, 예찬에 그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病人懇親會錄>은 여타의 작품보다 당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러한 시선을 통해 작품 속에서 민족이 행해야 할 강한 실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존 발표되었던 新小說 작품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이 작품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있다.

Ⅲ. 『大韓民報』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

<病人懇親會錄>은 『大韓民報』⁶⁾에 연재된 작품으로 저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轟笑生이다. 新小說이 가지는 현실 인식 양상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유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 저자가 筆名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해 연재신문인

6) 1909년 6월 2일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31일에 폐간되었으며, 1910년 8월 18일(353호)까지는 『大韓民報』라는 이름으로, 그 이후 8월 31일(357호)까지는 『民報』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였다. 『大韓民報』는 삽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반일적인 시사 만화는 당시 국민을 애국사상으로 계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大韓民報』는 일제 통감부의 눈에 거슬려 삭제된 일이 많았다.

『大韓民報』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당시 시대 배경부터 접근해 보고자 한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 언론에 직접 검열과 탄압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신문지법과 출판법이 제정되어 한국 정부도 언론에 제도적인 통제를 가했다.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로 정간 처분을 비롯하여 압수, 발매 금지 등이 빈번했다. 1907년 7월 이완용 내각의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신문지법’은 흔히 ‘광무신문지법’으로 불리는 악법으로 이 법을 근거로 신문 발행 허가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언론 통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일본인들도 한국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한글 신문을 발행하는데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일본어 신문도 발행하였다.⁷⁾ 한편 당시 통감부는 주요 민족지인 『大韓每日申報』를 비롯하여 『皇城新聞』, 『帝國新聞』 등을 탄압하면서 또 다른 회유책으로 새신문지법에 의한 민간신문을 다수 허용하는데, 『大韓民報』는 그러한 시기에 최초의 지방신문인 『慶南日報』와 친일지 『시사신문』, 『대한일일신문』 등과 함께 탄생하였다.

『大韓民報』는 大韓協會⁸⁾의 기관지였던 『大韓協會會報』⁹⁾를 전신으로 하여 일간신문으로 발전된 것으로, 조국정신을 국민에게 불어넣고 교육과 실업으로써 국가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행된 것이다. 1909년 6월 2일에 창간된 『大韓民報』는 신문마다 1면에 ‘經世’, ‘覺醒’, ‘諷刺’, ‘批判’ 등을 주제로 하여 삽화¹⁰⁾를 연재하였고, ‘新來成語 問答 解說’, ‘諷林’이라는 독자 투고란과 잘못 쓰이고 있는 한자의 훈을 바로잡아주는 ‘俚訓覺非’를 운영하였다. 또, 각국의 노래와 속담을 소개하고, 문학상식을 해설하는 등 문화적·계몽적인 면을 부각시켜 편집하기도 하였다.

당시 민족운동 노선은 크게 두 줄기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

7) 차배근 외, 『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2, 61쪽.

8)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310~311쪽.

大韓協會는 1907년 7월에 결성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폭넓은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9) 1908년 4월에 창간, 1909년 3월에 제12호로 종간되었다.

10) 김복순, 앞의 책, 309쪽.

이처럼 삽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이 『大韓民報』의 특징인데, 특히 반일적인 시사만화는 당시 국민을 애국사상으로 계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大韓民報』는 일제 통감부의 눈에 거슬려 삭제된 일이 많았다.

는 개화운동·독립협회운동·애국계몽운동으로 발전된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민란·동학농민전쟁·평민의병전쟁으로 진행된 운동이다. 이들 두 줄기의 운동은 3·1운동에서 일단 합류하지만 1920년대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와 계층 분화에 의해 부르주아 민족주의운동과 노농운동으로 분리되었다가 그 이후의 新幹會 운동에서 다시 집결된다.

『大韓民報』가 지향하고 있는 애국계몽사상과 개화사상은 사상적인 면과 계보적인 면에서 연관성을 지닌다. 애국계몽사상의 사상적 기반은 개화사상과 외래사상이라 할 수 있다.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개화사상에서 구하는 것은 개화사상과 애국계몽사상이 공유하는 사상적인 공통점, 즉 국권의 수호에 전제되는 것이 개화이며, 그 첩경은 서양의 근대문물을 수용하고 계몽을 통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해 근대적인 지향성을 보였다는 점¹¹⁾에서 나타난다. 애국계몽사상은 을사조약 후 국권회복운동으로 전이되면서 운동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1910년까지 지식층·자본가층 혹은 대중적인 사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운동¹²⁾이었으며 사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숙한 것이었고, 의병전쟁과 결합되지 않고 일본의 침략과 봉건지배에 철저히 맞서지 않은 채 운동을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제약과 한계를 지닌다.¹³⁾ 또한 이러한 계몽주의의 도입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논리로 투사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大韓協會는 1907년 7월에 결성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폭넓은 사회계몽운동을 전개¹⁴⁾한 바 있다. 이 협회의 회장은 南宮櫛, 부회장은 吳世昌이었으며, 鄭喬, 張志淵, 洪弼周, 尹孝定 등이 평의원으로 가담하였고, 李海朝, 周時經, 陸定洙, 李鍾鱗, 申采浩도 이에 참여한 바 있다.

大韓協會의 기관지격인 『大韓民報』는 국한문혼용의 민간신문으로, 구한국의

11) 이진영,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 논문, 1986, 16~24쪽.

12) 위의 책, 70쪽.

13)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한국민중사 II』, 풀빛, 1986, 110쪽.

14) 이현중, 「학회의 활동」, 『한국사』 20, 탐구당, 1981, 107쪽.

이 시기 각 애국계몽단체에 대한 민중들의 견해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민중의 불신이 만연되어 있어 건전한 학회·정치사회단체마저 활동이 혼미할 정도였다고 한다.

멸망 직전의 사회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의식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大韓民報』에는 <病人懇親會錄> 이외에 11편의 작품이 더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강한 현실 비판과 사회 풍자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널리 확대된 소설개혁운동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초기 新小說의 형성 단계에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던 서사 장르의 형식을 폭넓게 보여 주는 자료들¹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의 저자를 밝히는 것도 작품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개화계몽시대 신문연재소설은 저자가 無署名 혹은 筆名인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창작물을 게재한 저자는 李人植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재소설에서 記名이나 筆名¹⁶⁾으로 발표된 소설은 대부분이 창작된 것인데 비해 無署名小說은 예로부터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글로 엮은 것이나 논설류가 많다. 이들 소설에 저자의 이름이 밝혀졌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건 그 저자는 전문적인 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그 소설이 연재된 신문의 기자나 신문관계자가 소설까지 겸하여 썼던 것 같다.

<病人懇親會錄>의 저자로 되어 있는 轟笑生에 대해서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이 없으나, 위의 사실과 연관해 볼 때 당시 『大韓民報』와 관계하고 있던 작가인 李海朝, 陸定洙, 李鍾麟, 申采浩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¹⁷⁾ 작품에 나타나는 반봉건, 반외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기독교청년운동을 주도하면서 <松籟琴>을 창작했던 陸定洙,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천도교 教領을 지낸 李鍾麟, 소설 형식에 있어 토론체 소설인 <自由鐘>을 창작했던 李海朝, 애국 계몽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申采浩 모두 작품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작가 중 陸定洙와 李鍾麟은 각각 활발한 천도교와 기독교 활동을 했던

15) 權寧珉, 『大韓民報』의 愛國啓蒙小說, 『開化期文學의 재인식』, 지학사, 1987, 278쪽.

16) 참고로 『大韓民報』에 연재되었던 소설들과 그 작가의 익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花愁> - 桃花洞隱, <顯微鏡> - 神眼子, <萬人傘> - 白鶴山人, <病人懇親會錄> - 轟笑生, <絶纓新話> - 白痴生, <五更月> - 一吁生, <花世界> - 舞蹈生, <小金剛> - 憑虛子, <薄情花> - 隨聞生, 禽獸裁判 - 欽欽子, <鏡中美人> - 伐柯生

17) 『大韓協會會報』, 규정 및 회원 명부.

작가들이다. 특히 李鍾麟은 천도교의 敎領을 지내며 鳳凰山人, 鳳山이란 필명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그의 창작 활동 시기가 1910년대 초반에 『天道教會月報』에 단편소설 등을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病人懇親會錄>의 창작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陸定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없으나 1908년 『獎學月報』 단편소설 현상 공모에 입선한 기록이 있으며 당선된 작품이 전투적인 국민주의 시대의 한 애국청년의 치열한 꿈, 특히 민족운동에 있어서 여성해방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과 독립협회운동의 계통에 속하는 계몽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엿볼 수 있다.¹⁸⁾ 陸定洙는 배재학당의 애국학도로 '협성회'의 토론회 속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가 해체된 이후 기독교청년회 운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청년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의 중요한 시기로 자리잡던 때가 1910년 전후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08년 단행본으로 간행된 그의 대표작 <松籟琴>은 1904년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나는 하와이에 노동자로 팔려간 한 가족의 고난과 또 하나는 제국주의 압박에 대항하여 토착자본의 활로를 뚫으려는 개명한 상인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작품을 발표한 陸定洙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로 추측 가능하다. 그리고 李海朝는 悅齋 등 다양한 필명으로 창작 활동을 한 작가이다.¹⁹⁾ 그는 일찍이 부친과 金允植 선생의 영향을 받아 한학에 뛰어났으며 이후 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세계와 접하면서 소설 창작에 임하게 된 근대적 지식인 계층의 작가로 활약하였다. 그는 1903년 『帝國新聞』의 기자로 근무하기도 하고 『皇城新聞』, 『每日申報』의 편집과 문화부 관계의 일을 하였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여러 작품들을 신문에 연재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1907년 11월 창립된 大韓協會에 입회한 그는 교육부 사무장에 임명된²⁰⁾ 후 1908년 7월에는 평의원에 선출되고 다시 11월에는 평의원에 재선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李海朝가 『大韓民報』에 참여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토론체 소설인 <自由鍾>은 세 여

18) 崔元植, 『韓國近代小說史論』, 창작과비평사, 1994, 244~246쪽.

19) 이 외에도 悅悅齋, 東農, 善飲子, 遐觀生, 措春子, 神眼生, 解觀子, 牛山居士 등의 필명이 있다.

20) 『大韓協會會報』 1호, 1908. 4, 58쪽.

성의 대화를 통해 광범한 대중적 역량의 결집 위에서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권회복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自由鍾>은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病人懇親會錄>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李海朝가 1907년 6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帝國新聞』에 연재하고 이후 1908년 단행본으로 출간한 <枯木花>에 나타나는 작가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표출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가의 허용, 외국유학에 대한 신교육의 효용, 기독교의 박애사상 등을 역설하고 있다.

조박사는 원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리시도를 밋는 량반이라,
악한 병의 빠진 사람을 구원할 선심이 유연히 나서,
(조) 너의 덕 진스님을 니가 좀 비앗시면 엇더하냐.
니게 괴왕 약이 잇스니, 효험이 엇더홀는지는 미리 알지 못하지마는 시험이나 햏야 보갓구나.

조박사는 본력 야박하고 경술허기로 꺾호호얏던 사름인디, 미국을 가서, 성경 공부를 훈 후로 독실한 신즈가 되어, 진리를 씨다름으로, 전에 호던 힘실을 낫낫치 회기호고 도덕군즈가 될 스릅이라, 날로 권진스를 위햏야 상제께 기도도 호고 죠흔 말노 병즈를 인도도 하니...

특히 <枯木花>의 등장인물인 조박사가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선이 기독교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성경의 교리와 기독교 정신이 제시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작가의 기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李海朝가 신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어지러운 조국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요사이느그장호생애도 홀슈업는것이장안각쳐에 예수교인이 날마다 늘어서 우환질교가 잇스면 자기네끼리 기도를호고 우리는목통터지도록 문슈소리를 질너도 쓴외보듯 지날결에도 찾지를안이하니 이노릇을 장찾엇지호며 또 눈설후 호집걸너큼찾는사름이 잇다호대도 격이오장이 잇고는 안이쇼야 그노릇은 못호갓습디다(29장)

<病人懇親會錄>에서는 장님의 발언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예수교인 때문에 자신들은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의 시선으로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기독교인들의 폐쇄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던 기독교청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陸定洙나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가졌던 李海朝를 <病人懇親會錄>의 작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李海朝가 <病人懇親會錄>의 작가라고 확신하기에 어려운 점은 <枯木花>에 의병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활빈당이 갑오농민전쟁과 의병투쟁을 계승한 반봉건·반외세 투쟁의 선봉적이 역할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재했던 사건과 인물을 왜곡해 가면서 극악무도한 반국가·반사회·반민중적인 도적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枯木花>의 발표 시기가 1908년이고 <病人懇親會錄>의 발표 시기가 1909년임을 감안할 때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추정 가능한 인물 가운데 申采浩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일 가능성이 남는다. 申采浩는 소설 효용론적 문학관의 입장에서 소설의 사회·공리적 기능을 주장했다.

嗚呼라 小説은 國民의 羅針盤이라. 其說이 俚하고 其筆이 巧하여 目不識丁의 勞動者라도 小説을 能讀치 못할 者가 無하며, 又嗜讀치 못할 者가 無하므로 小説이 國民을 強한대 導하면 國民이 強하며, 小説이 國民을 弱한대 導하면 國民이 弱하며, 正한대 導하면 正하며, 邪한대 導하면 邪하니, 小説家된 者가 마땅히 自儆할바이어늘 近日小説家들은 誨淫을 主旨로 삼으니 이 사회가 장차 어찌 되리오.²¹⁾

申采浩는 소설을 ‘국민의 나침반’으로, 독자 대중을 계도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사 양식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는 소설을 人心을 순화시키고 풍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량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권 회복같은 천하 대사업은 영웅 호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甲男乙女

21) 權寧珉, 『開化期文學의 재인식』, 지학사, 1987, 22쪽에서 재인용.

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회 풍조나 시대적 조류 또한 위대한 ‘哲理’나 ‘학문’이 아니라 ‘諺文小說’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시각이 그러하다. 그가 위에서처럼, 淫蕩한 소설이 널리 읽히면 그 국민도 이것의 영향을 받아 음탕해지고, 의협적이고 慷慨한 소설이 많으면 그 국민 또한 그 영향을 받아 俠情慷慨해진다면서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학관에서 연유한다.²²⁾ 이러한 면에서 申采浩에 있어 소설은 공리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病人懇親會錄> 곳곳에서 보여지는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육으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교육구국론으로 귀결된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른바 교육구국론은 1910년 이후의 新小說을 포함하여 애국계몽기 전 기간에 생산된 소설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정신의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1890년대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했던 급진 개화파의 일부 지식인들과 점진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분명히 인식되었다. 특히 근대의식에 민감했던 지식인층은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현실 앞에서 民權 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교육구국’ 사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이들은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수호하고, 그리고 만약 국권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국권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특히 1905년 이후 朴殷植, 申采浩, 金九 등이 ‘교육입국’, ‘교육구국’이라는 기치 아래 전국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 1910년 한일합방 직전까지 불과 수년 사이에 전국에 3천여 개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새로 세워지고, 1909년 한 해 동안에만도 전국에서 사립학교 설립을 청원한 수가 무려 2,056건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시기의 교육 구국에의 열망을 짐작하게 한다.²³⁾ 특히 학교 설립 기금의 대부분을 민중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당대 민중들의 신교육에 대한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한일합방 직전까지 『大韓民報』에 관여했던 申采浩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2) 김형중, 『애국계몽기의 신문연재소설』, 한국문화사, 2001, 103~105쪽.

23) 洪一植, 앞의 책, 82~83쪽.

IV. 결론

<病人懇親會錄>은 주권을 상실하기 직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의식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인간 행동을 통해 허구적 장치도 없이 비판적·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병인들을 내세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구조를 통해서 강한 풍자적 효과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病人懇親會錄>은 언론 통제의 배경 속에서 창작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을 통해 봉건 관료들의 부패상과 그 원인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반봉건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계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자고 제안하는 실천 의지가 강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는 일제의 침략 정책을 경고하는 한편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민중의 대동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病人懇親會錄>의 시선은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병인의 입장에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상황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病人懇親會錄>이 실렸던 『大韓民報』는 민족 신문인 大韓協會의 기관지였다. 『大韓民報』는 조국정신을 국민에게 불어 넣고 교육과 실업으로써 국가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행된 신문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大韓民報』에 관여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病人懇親會錄>의 저자를 살펴 보았다. 작품이 그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소설이 가지는 공리성을 강조하는 면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구국론을 접목시켜 보면 申采浩가 <病人懇親會錄>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 대해 좀더 치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病人懇親會錄>은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민족이 처한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病人懇親會錄>처럼 이 시기 筆名으로 발표되었던 작가의 작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筆名으로 발표된 작품들이 개화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치를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筆名作家의 작품 연구를 다음

과제로 삼는다.

주제어 : 新小說, 病人懇親會錄, 轟笑生, 申采浩, 大韓民報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7
權寧珉, 『開化期文學의 재인식』, 지학사, 1987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1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 1999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김형중, 『애국계몽기의 신문연재소설』, 한국문화사, 2001
차배근 외, 『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2
崔元植, 『韓國近代小說史論』, 창작과비평사, 1994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Ⅱ』, 풀빛, 1986
韓元永, 『韓國開化期 新聞連載小說研究』, 일지사, 1990
洪一植,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80

<Abstract>

〈Byungingahnchinhwaerok〉's Recognition of Reality and the Study on its Author

Cha, Mi-Ra

This is to look into various appearances of the society depicted in the new-era novel, <Byungingahnchinhwaerok>, which was published in the national newspaper of the early 1900's, 'Daehanminbo', as well as to analogize the novel's author, based on the author's perspective.

<Byungingahnchinhwaerok> not only expressed a strong criticism against corrupt feudal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sound national economy, not to mention that education is a must in order to build up the economy. Moreover, while anxious about the fate of the nation with the imminent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the novel advocated that all fellow countrymen should put their strength together in order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author, based on periodic cognizance and viewpoints present in the work. Moreover it also looks at the writers who took part in the publication of 'Daehanminbo', the official paper of the 'Daehanhyuphwa', the political organization founded in 1907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 in various areas. Although writers such as Jung-Soo Yook, Jong-Rin Lee and Hae-Jo Lee seem to have been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Byungingahnchinhwaerok>, they either believed in Roman Catholicism and Chun-Do-Kyo(a hybrid religion), or offered these religions as the alternative to introducing new western cultures, which does not correspond to the negative standpoint of the <Byungingahnchinhwaerok> towards the Christianity. Therefore the novel's

author must be Chae-Ho Sin who advocated the adv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and saving the nation through education.

Created in the backdrop of the media control by Japan, the novel, <Byungingahnchinhwaerok> boasts sharp, objective criticism to the realistic subjects, and was aware of the reality, which was uncommon among novels written in the period.

Key Words : Sinsoseol, Byungingahnchinhwaerok, Goyngsosang, Chae-Ho Sin, Daehanminbo